

제 229회 김포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답 변 서

김 포 시

시정질문 및 답변

의원명	질 문 내 용	페이지
배강민	<p>○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그간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2. 서울 편입과 관련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3.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시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4. 11월 16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은 총선을 의식한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역대 정부에서 추구해 온 '균형발전'이라는 오랜 국가적 목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신호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P. 1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 : 배강민 의원】

질 문 1

■ 의원님께서서는

□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그간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은
2022년 하반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때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시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 되기에
지난 1년여 간 통리장단이나 향우회 등
민간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서울시 편입에 대해
꾸준히 소통했고
긍정적인 의견들을 수렴해 왔습니다.

올해 8월, 경기도가 진행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김포시 주민설명회에서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김포가 누리게 될 장점과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지도,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에서
소외된 김포시민들은
경기도가 김포시에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반문하며
차라리 ‘서울시로 편입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이는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김포시민이 선택권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빨리
서울시 편입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다수의 시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김포시민의 의견을 수치화하기 위해
유선전화 방식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김포시민 68%가 서울시 편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정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 11.17일부터 김포시민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한
‘공동연구반 구성’을 합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 문 2

- ☐ 다음, 서울 편입과 관련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서울시 편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방식의 여론조사를 시행했으며
서울시 편입에 대해 찬성 68%, 반대 29.7%의
응답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질 문 3

- ☐ 이어서,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시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시민들의 가장 많은 걱정과 우려 사항이었던 읍면 지역 동 개편에 따른 세제 혜택,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 폐지 및 재정 축소 우려 등은 현재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에 처리사무, 지방재정, 읍면 지역 등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변경에 따른 각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의 범위 결정 시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이 아닌
작게는 읍면동 단위로
도시화율,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김포의 특성을 반영해
성장관리권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 모든 과정에 있어
우리 김포시의 여건과 발전정도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편입 공동연구반을 통해
보다 정밀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바,
추가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4

- 마지막으로, 11월 16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은 총선을 의식한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역대 정부에서 추구해 온 '균형발전'이라는 오랜 국가적 목표를 포기할 수 있다는 신호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우려에 대한 시장 입장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먼저, 총선을 의식한 선거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함에 따라
김포시도 그에 발맞춰
빠르게 결정했어야 했고
이는 총선 및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게

오로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지 않았다면,
김포시는 경기 북부 또는 경기 남부 중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서울과의 통합을 원치않는 분이 있다면
경기 남도와 북도 중
우리가 어디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밝혀주어야 합니다.

다음, 균형발전에 대한 우려입니다.
당연히 국가균형발전은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방에 공장을 지어주고,
단순히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닌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증진하고,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김포시의 서울편입은
수도권 집중의 차원이 아닌,
국가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서로의 장점으로 상생하여,
세계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 수도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 거점도시들은
상생을 통해 성장시키고,
촘촘한 교통을 비롯한 인프라들을 바탕으로
수도 및 다른 거점도시들과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지역의 역량 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곳곳의 상생발전을 통한 시너지가
국가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배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